

아소산의 신화

신이 발로 차서 생겨난 풍경

아소산에는 12 신령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12 신령 중 특히 중요한 3 신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健磐龍命)와 그의 아내인 아소쓰히메노미코토(阿蘇都比咩命), 그리고 그들의 손자인 히코미코노카미(彦御子神)입니다.

일본의 신들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자연의 혜택과 재해, 양쪽 모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소산 신들의 경우는 벼의 풍작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선한 면이 있는 반면, 파괴적인 화산 분화를 일으키는 악한 면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 아소의 칼데라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신화에서는 이 칼데라에 사람이 살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칼데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물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며, 이는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 덕분이라고 전해집니다.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처음에 칼데라 서쪽 중간쯤에 있는 겹고개에서 칼데라 벽을 발로 차 부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쪽으로 이동한 다테노에서 다시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칼데라 벽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 내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다테노는 현재의 시라카와 강과 구로카와 강이 합류하여 칼데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다테노’라는 지명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가 2 번째 발차기 후 중심을 잊고 뒤로 넘어졌을 때 말한 “다텐노(‘못 일어나겠어’라는 뜻의 일본말 방언)”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호수의 물을 빼 사람들이 칼데라 내에서 생활하고 농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아소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이 화산에 얹힌 12 신령 중 가장 중요한 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